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

- 머리말 -

반갑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무거운 일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미리 준비를 잘 해 놓으면 올해, 내년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토요일, 일요일 마음 놓고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는 아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일 40시간하고 남은 시간의 휴식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학습과 자기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국민의례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보니까 국정목표, 국정원리라고 써놓은 게 보였습니다. 태극기만 보아야 하는데 국정목표, 원리 붙여 놓은 걸 봤습니다. 보면서 생각이 번영과 효율에 관한 얘기가 많이 강조돼있지 않은 거 같아서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영한다고 번영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면 번영이 되고 효율이 향상되는 게 아닌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효율, 성장, 발전 등 확장형 비전이라고 합니다. 확장형 비전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 보면 확장형 비전은 껍데기고 실제로 확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알맹이는 제거 다 담겨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정원리라고 해놓

은 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제가 변덕이 많은 사람이어서 뭐든지 한번 만들어 놓고 일 년을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바꾸기를 좋아하는데 국정원리만은 아직까지 바꿀 생각이 없고 혹시 다음에 누구라도 저건 좀 안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바뀌어도 좋을 때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성취하면 바뀔니다. 성취도 못하고 바꿀까봐 걱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 임기동안 성취해서 바뀌버리고 다음 사람은 하든 말든 상관 안하는 것입니다. 내 임기동안 저것은 됐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분권과 자율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놓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도가 잘 현실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서 토론합니다. 첫째로 각 부처에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쓰게 합니다. 이 제도는 아마 제도 자체만으로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의 검증을 거쳐서 자율하면 창의성이 높아지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좋아집니다. 이런 검증된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율은 일시적인 비효율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책임도 높아집니다. 검증된 원리입니다. 이걸 잘 한번 해봅시다.

이것만으로도 예산 자율편성제도는 의미가 있고 꼭 성공시킬 가치가 있습니다. 더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은 예산 전체의 효율성을 재원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 배분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고 자율 하더라도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략적으로 어떤 국가 부분에 가장 큰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는 자율과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대통령이나 총리실 예산처에서 그때그때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하지 않고 큰 한도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배분을 위해서 토론을 합니다. 아울러 이 제도 자체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깊이 토론이 안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책임이 없으니까 비효율적이다 싶어도 우선 결정하고 집행하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스스로 판단과 책임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 목표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5%, 이게 그렇습니다. 초장에는 목표를 높이해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삭 줍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처음에 논바닥에 이삭 주우러 가면 여기 저기 많이 놓여있습니다. 한번 줍고 지나가고 나면 이제 없습니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도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지금은 초기니까, 금년은 연습이고 내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때니까 이때 효율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 우리가 수치로서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목표는 같은 돈으로 좀 더 범시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정부가 하는 일을 못미더워 하고 미워해서 20%는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쑥불쑥 얘기합니다. 10%도 힘들거 같은데 말을 그렇게 예사로 합니다. 20% 낭비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의 영역에서는 더 적을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말한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실제 해보면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잘 다듬어 보면 상당 수준 절약하고 그만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줄지는 않으니까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결론이 날 수도 안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안 나더라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 토론은 누구에게 이기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이런 자리에서 국정의 중요도에 대해 서

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는 계기로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협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내놓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양보하고 내부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양보하는 몫만큼을 내부적으로 다시 생산성을 높여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성공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